

문헌의 발생과 분류력사

최영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책을 그 내용에 따라 정확히 분류해놓아야 독자들이 요구하는 책을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김정일전집》 제7권 279페이지)

문헌은 사람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해나가는 과정에 이룩하여놓은 성과와 경험, 교훈 등을 서술한 기록물로서 사람들의 서사생활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무엇보다먼저 문헌의 발생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문헌은 문자와 밀접히 련관되어 발생하였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요구에 맞게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오는 과정에 언어를 적극 리용하면서 끊임없이 발전시켜왔다.

사회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음성언어의 제한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도를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얻어진것이 문자였다.

교계수단의 하나인 음성언어로 시작된 사람의 언어생활은 점차 입말을 표기하는 수단인 문자의 발생과 더불어 문자생활의 영역에까지 확대되었다. 문자의 발생은 사람들의 사회활동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었다. 즉 문자가 생겨남으로써 사람들은 그것을 리용하여 자기들이 이룩하여놓은 경험이나 지식을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기 시작하였다. 문자의 발생은 곧 문헌을 발생시킨 기본요인으로 되었다.

한편 문헌은 문자를 기록할수 있는 여러가지 서사수단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하여 발생하였다.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과정에 점차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자 그것을 기록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후세에 남기려고 하였다. 그러자면 문자이외에 여러가지 서사수단이 있어야 하였다.

문자를 쓰기 시작하던 초시기에는 아직 사람들이 서사생활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서사수단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쇠조각이나 도자기, 바위돌, 짐승의 뼈나 가죽, 나무조각, 자연상태의 색깔, 끈이 뽕죽한 물건 등을 서사수단으로 리용하였다.

고대시기의 사람들은 엄혹한 자연과의 투쟁에서 얻은 경험이나 이웃종족, 나라와의 관계에서 벌어진 특이한 사건, 사실들을 자연바위나 쇠로 만든 그릇에 새겨놓았는데 이것을 문헌의 초기형태로 보고있다.

사람들의 창조적능력이 높아지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부터 기록해야 할 내용이 많아졌으며 따라서 서사수단을 갱신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 진지한 탐구와 노력으로 마침내 종이를 발명하였고 붓과 먹을 만들어냈다.

종이와 붓, 먹과 같은 서사수단들이 발견되면서부터 사람들의 서사생활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사람들은 종이를 비롯한 서사재료들을 가지고 여러가지 사건과 사실, 경험과 지식을 비롯한 인간생활의 이모저모를 빠짐없이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기록물들을 한 곳에서 다른곳으로, 전세대가 다음세대에 전달하였다. 이 과정에 다방면적이며 풍부한 내용을 담은 여러가지 문헌들이 나오게 되었다.

오늘날 과학기술 특히 정보기술의 발전은 전자문헌의 출현을 가져왔다.

전자문헌은 자성재료에 지식을 기록한 문헌을 말한다. 일명 《자성재료문헌》이라고도 한다. 전자문헌은 1960년대 어느 한 나라에서 《화학초록》을 자기원판에 기록하여 내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출현한것으로 보고있다.

전자문헌이 처음으로 출현한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은 길지 않지만 오늘 일부 나라들에서는 CD 또는 DVD와 같은 전자문헌생산량이 종이문헌생산량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종이문헌에 비할바없이 많은 내용을 수록할수 있는 전자문헌의 출현은 해마다 늘어나는 도서관의 서고팽창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고리로 되었으며 나아가서 《책이 없는 도서관》, 《수자도서관》을 실현할수 있는 기초로 되었다. 그리하여 도서관들에서는 종이문헌뿐아니라 전자문헌들도 수집하여 독자봉사에 널리 리용하기 시작하였다. 더우기 인터넷의 보급으로 최근시기에는 도서관들의 문헌수집량가운데서 전자문헌의 수집량이 종이문헌의 수집량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다음으로 문헌분류의 역사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인간이 분류 특히 문헌분류를 진행한 역사는 수천년을 헤아린다고 말할수 있다.

일찌기 과학기술문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동방문화의 찬란한 개화기를 열어놓은 우리 나라에서 문헌분류의 역사도 오래다고 할수 있다.

지난날 우리 선조들은 일찌기 시가와 같은 문학작품들과 개별적인 문인, 학자들의 견해를 반영한 글, 병서와 의서, 천문, 력사 등으로 문헌들을 서로 구별하였다.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발생하였던 7분류법이 바로 이러한 분류방법이었다.

《칠략》(七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한 이 7분류법에 의하면 각종 유교경전과 그것을 익히는데 필요한 문헌들을 하나의 부류로 하고 정치, 경제, 종교, 법률관계도서를 또 하나의 부류로 하였으며 시가작품과 병서를 각각 하나의 부류로 보았다. 그리고 천문, 력학을 하나의 부류로 하고 의학, 위생학 등을 다른 하나의 부류로 설정하였다.

모든 문헌들을 7가지 부류로만 나누는것이 어려웠기때문에 큰 부류를 이렇게 설정하여놓고 그안에 다시 몇가지 종류를 내용에 따라 배속시켜놓았다. 그리하여 총 38종의 크고작은 부류의 연원과 호상관계, 매 부류에 속하는 문헌들의 용도와 학문적인 의의를 설명하고 그것을 하나의 부류처럼 취급하였다. 이러한 분류방법은 당시 사람들의 사고관점과 그 이전시기에 이미 이룩되었던 학술연구의 경험에 기초하여 나온것이였다.

문헌들에 대한 분류방법은 그후 4부분류법으로 고쳐졌다.

4부분류법은 모든 문헌들을 갑, 을, 병, 정의 4부류로 나누고 매 부류마다 다시 련관된 내용의 도서들을 종합하여놓는 문헌분류방법이다. 4부분류법에서 갑부에는 유교경전과 그것을 해설한 책들이 속하며 을부에는 병서들과 개별적인 사람들의 견해와 주장을 서술한 책들, 병부에는 각종 력사책들과 지리문헌들, 정부에는 시가작품들이 포함되였다.

4부분류법은 그후 사회적으로 널리 리용되는 과정에 부족점을 수정하여 다시 경(經部), 사(史部), 자(子部), 집(集部)의 4부분류법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중세기에 우리 나라에서 리용된 가장 대표적인 문헌분류방법이었다. 여기서 정부는 지난날의 갑부로서 주로 유교경전들을 가리키며 사부는 지난날의 병부로서 각종 력사책들과 지리책들을, 자부는 지난날의 을부로서 개별적인 사람들의 견해를 서술한 책들을, 집부는 지난날의 정부로서 개별적인 문인들의 문집들을 가리켰다.

4부분류에서는 매 부마다에 몇개의 류(類)가 소속되었다. 4부분류체계에서 가장 완비되었다고 하던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에 리용된 분류체계에 의하면 정부에는 10류, 사부에는 15류, 자부에는 14류, 집부에는 5류가 소속되어있었다.

1776년에 당시 규장각의 장서를 장악하기 위하여 바로 이 4부분류법을 리용하였다.

고려시기에는 문헌에 대한 분류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정연한 체계에 의하여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4부분류법은 그후 오래동안 계속 리용되어오면서 시대에 따라 그리고 장서의 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두기는 하였으나 조선봉건왕조말기까지 그대로 적용되었다.

4부분류법은 봉건유교사상에 기초하고 봉건지배계급의 리익을 대변한 문헌분류방법이었으나 여기에는 당시 문헌분류의 목적과 그 계급적성격, 과학과 문화의 발전수준 등이 일정하게 반영되어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근대적인 문헌분류법이 처음으로 생겨난것은 1906년 3월에 대동서관이 설립된 때부터이다. 당시 대동서관에서는 봉건유교사상에 기초한 4부분류법의 제한성을 극복하려는데로부터 력사, 지리, 정치, 법률, 사회학, 철학, 경제, 농업, 상업, 공학, 의학, 군사학 등 13개의 류문으로 된 분류법을 새로 작성하여 리용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38(1949)년 9월에 목문까지 구성된 첫 10진분류표를 만들어내 놓았다. 그후 주체42(1953)년, 주체47(1958)년, 주체50(1961)년, 주체53(1964)년, 주체64(1975)년, 주체75(1986)년, 주체78(1989)년, 주체85(1996)년에 개작된 분류표들을 내놓았으며 주체89(2000)년에는 《도서 및 서지분류표》와 《검색어사전》을 결합하여 《분류-검색어사전》을 만들어내 놓았다.

현재 우리 나라의 모든 도서관들에서는 지난 시기의 분류표작성과 리용에서 이룩된 경험에 토대하여 보충완성된 《분류-검색어사전》을 리용하여 수집된 문헌들을 분류하고있다.

세계적인 범위에서 볼 때에도 문헌분류의 력사는 매우 오래다고 볼수 있다.

B.C.250년경에 고대에쥘트의 알렉산드로도서관의 도서관학자 칼리마크스는 문헌을 6개의 부류로 나누고 그안에서 다시 저자에 따라 나눈 분류표(체계분류표)를 만들어 리용하였다. 이것을 오늘날 도서관에서의 문헌분류의 시초라고 보고있다.

당시 칼리마크스가 내놓은 분류체계는 아직 과학적으로 세분화되어있지 않았고 도서관장서도 그리 많지 않았던것으로 하여 매우 소박하고 협소하였지만 여러 나라의 도서관들에서는 그가 내놓은 분류체계에 기초하여 분류표를 자체로 만들어 리용하기 시작하였다.

문헌분류에 대한 연구는 근대에 와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비교적 과학적인 성격을 띠고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1810년에 프랑스의 관념론철학자인 부이요가 내놓은 5개의 기본류문(신학, 법학, 과학기술, 문학, 력사)으로 된 분류표와 1834년 로씨야까잔대학분류표, 1859년 영국

에서 내놓은 7개의 기본류문으로 된 분류표, 1876년에 듀이에 의하여 제안된 10진분류표(DDC) 등을 들수 있다.

이 시기에 와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문헌발행량의 량적장성과 국제적범위에서의 문헌교류의 축진을 가져왔다.

이것은 문헌분류체계를 개선하여 나라들사이에 문헌발행정형을 통보하고 교환할수 있도록 분류작업의 통일성을 보장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1895년에 제1차 국제목록학회에서 국제적인 10진분류표 제1판이 나왔으며 그 후 그것을 전신으로 하여 1905년에 국제서지학회가 《종합10진분류표》(략칭 UDC, УДК)를 만들어내놓았다. 이 분류표는 국제기구에 의해 작성되고 여러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것으로 하여 국제10진분류표라고도 한다.

국제10진분류표는 듀이가 내놓은 10진분류표를 모체로 하여 만들어졌다.

듀이는 모든 과학지식을 10개의 류문으로 나눈 다음 매개 류문을 다시 10개의 강문으로, 강문을 다시 10개의 목문으로 구분하고 10진수로 분류기호를 구성하는 방식의 분류표를 만들었다. 이 분류표가 나옴으로써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문헌이 늘어나는데 맞게 분류항목을 구분할수 있게 되었으며 여러가지 보조기호들의 도입으로 문헌을 내용에 따라 여러 측면으로 분류할수 있게 되었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듀이가 내놓은 10진분류원리를 리용하여 만들어진 국제10진분류표를 사용하고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자체의 국내분류표를 작성리용하고있다.

문헌분류는 이와 같이 오랜 력사적시대의 변천과정을 거쳐 문헌분류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일반적으로 문헌분류표는 해당 시기의 과학발전과 문헌의 흐름상태를 반영한것이기때문에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제한성이 나타나게 된다.

모든 나라들에서는 문헌분류표를 한번 만들어놓은데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보충갱신하고있다.

우리는 문헌분류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분류표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개선해나가야 할것이다.